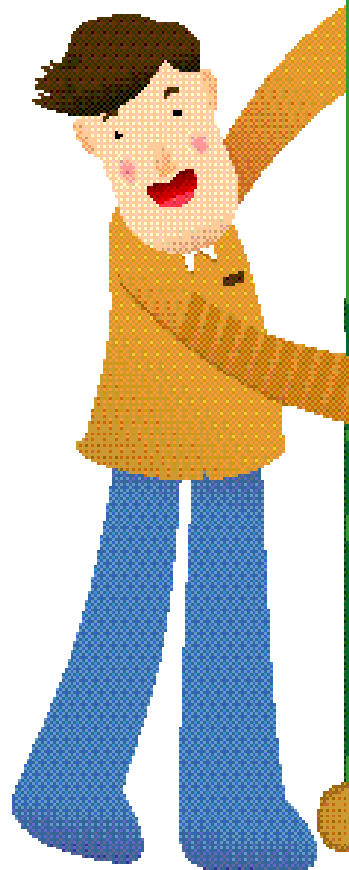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e메일,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일라스트_ 박지원

e메일은 직장인의 필수품

설문은 보다 일상, 대중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특정 계층이 아닌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62.7%가 20대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대변하듯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 20대가 41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50대는 8명으로 가장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 10대가 13명, 30대가 26명, 40대가 12명의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먼저, '안부, 감사, 축하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38.94%의 사람들이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메일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1.24%, '자필편지를 이용한다'가 19.47%로 나타났다.

모바일이 처음 국내에 들어온 것은 1988년(모토로라 다이낙 8000)이었다. 인터넷이 상용화 된 시기보다 6년이 앞서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e메일 이용자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유비쿼터스 시대를 떠올려 보자. 모바일로 e메일을 전송하는 모습을 말이다. 한편으로 이번 응답은 모바일의 휴대성과 e메일의 편리함을 통해 유비쿼터스란 현실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e메일을 사용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31.77%의 사람들이 '하루에 1~2번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응답은 이용횟수와 퍼센트가 비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주에 1~2번'이 26.17%, '한 달에 1~2번'이 21.50%, '일년에 5번 이하'가 17.76%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e메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명 중 31명이 '업무로 인해 e메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서두에서 다뤘듯 정보통신부에서 조사한 e메일 이용자는 전국민의 86.6%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은 e메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한글인터넷주소와 마찬가지로 e메일 역시 '한글@한글' 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편리함이 단연 으뜸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e메일은, 과연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31.77%의 사람들이 '하루에 1~2번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응답은 이용횟수와 퍼센트가 비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주에 1~2번'이 26.17%, '한 달에 1~2번'이 21.50%, '일년에 5번 이하'가 17.76%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e메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메일, 편지, 문자메시지 등 전달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46.21%나 되는 응답자가 빠르고 (16.09%), 읽기/쓰기가 쉬고(17.82%), 장소의 제약(10.98%)에 관한 사항보다 편리함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대와 성별을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 총 4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문에서 e메일의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얼마나 편리한 지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모바일 문자메시지가 e메일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편리함에 있었던 것이다. 모바일의 편리함이란 휴대성 외에도 한글이라는 우리 언어를 사용해서 모바일 속에 저장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이 큰 우의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정된 용량과 텍스트 만으로의 내용 전달이란 점에서는 e메일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e메일은 메가(MB)급을 넘어 기가(GB)급의 내용전달과 다양한 첨부파일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한글인터넷주소와 마찬가지로 e메일 역시 '한글@한글' 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글e메일주소는 편리함과 더불어,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문e메일로 기억하기 어려웠던 e메일주소를 한글을 사용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개인을 비롯해 업체에서도 한글 e메일주소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설문을 마치며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한글e메일주소를 통한 e메일의 엄청난 확산 효과를 떠올려본다. '유비쿼터스'라는 신시대와 함께. n

정보통신부(이하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1994년 인터넷이 처음 상용된 지 불과 10여년 만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는 3,000만 명이 넘어섰다. 더욱이 e메일 이용자는 전국민(4,800만 명 기준)의 86.6%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e메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넷피아@매거진, 신년호 'n+1교시'에서는 10대에서 50대까지 1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을 통해 e메일 이용에 대한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설문은 응답자의 '억지'가 아닌 '진솔한 답변'을 유도하고자 중복 답변을 허용했다. 그로 인해 통계상의 퍼센트가 100명의 기준이 아닌 응답수의 기준에 있음을 밝힌다.